



전북농협, 추담국악경연대회서 쌀 소비촉진 캠페인

전북농협이 전국 국악경연대회 현장에서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2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를 찾아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이동형 캠페인 차량인 '행복미(米)밭차'가 등장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경연대회 참가자와 방문객 50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주먹밥과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우리 쌀의 가치를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농심전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임실 강진면 지사협,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임실군 강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준희, 공공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강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명절에 맞춰 추진 예정인 '사랑가득 영양가득' 식품꾸러미지원사업과 '우리동네 고살길 지킴이'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협의체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랑가득 영양가득 식품꾸러미지원사업은 오는 9월 추석명절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고살길 지킴이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임실=전충영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임실군립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그림책 상상놀이터(책놀이) △(인문학 처방전)마음치유 심리학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생성형AI 입문)내 손안의 AI서 △대바늘 클래스 △천연화장품 공방 클래스 △오늘 밤, 아로마 테라피 △(바리스타)향기로운 커피 내리는 밤 △나만의 캘리그래피 △기타 중급△하모니카 초·중급 등 다채로운 강좌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8월 25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 /임실=전충영 기자

장수초 정구부 선수들, 전국 무대에서 당당히 우뚝

4학년 이하부 개인복식 1위·4학년 이하부 단식 1위와 2위·5학년 이상부 단식 2위 차지

장수초등학교 정구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5·6학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장수초 정구부의 이름을 알린 데 이어, 이제는 3·4학년 꿈나무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 도전하며 장수초 정구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장수초 정구부는 지난 2024년부터 전국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교운동부로 성장했다. 선배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하며 팀의 기반을 다졌다면, 최근에는 어린 꿈나무 선수들이 그 뒤를 이어 대회 경험을 쌓고 기량을 키우며 장수초 정구부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특히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정구대회에서는 4학년 이하부 개인복식 1위, 4학년 이하부 단식 1위와 2위, 5학년 이상부 단식 2위를 차지하며 저학년과 고학년 선수들이 함께 전국 정상권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5·6학년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3·4학년 선수들이 이어받아 직접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장수초 정구부가 특정 학년이나 일부 선수에 의존하는 팀을 넘어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수층을 갖춘 학교운동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박세리 지도자는 “5·6학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경험과 성과를 쌓으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본 3·4학년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의 훈련 모습과 경기를 보며 배우고, 직접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험을 쌓는 과정이 장수초 정구부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남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거둔 성과는 단순히 메달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값진 결과”라며 “학생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과 맞닿아 있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경기 과정에서 자신감과 협동심, 도전 정신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순창군, 외국인과 함께하는 발효문화여행 성료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국제교류 커뮤니티 HBA(대표 박철호)와 연계해 외국인과 한국인 30명이 참여한 ‘순창 문화메이트 발효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지역을 함께 경험하고 알리는 ‘문화메이트’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여행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순창의 자연과 발효문화를 공유하는 관계 기반 관광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천산 군립공원 탐방을 비롯해 전통 막걸리 만들기, 순창 로컬마트 장보기, 명인과 함께 고추장만들기, 순창발효테마파크 탐방 등에 참여하며 순창의 자연과 음식, 발효문화를 함께 경험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프로그램 전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했다. 순창에서의 경험을 개인 SNS와 외국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참가자가



직접 순창을 알리는 자발적인 관광 홍보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예비 글로벌 순창 장류축제’를 소개해 순창의 장문화와 축제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향후 순창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외용소방대연합회, 거제·통영 수해 복구 봉사

무주외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몽돌해수욕장 일원)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주외용소방대원들은 피해 현장에서 침수지역 정비와 토사 및 각종 수해 잔해물 제거 등 복구 작업에 참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무주외용소방대연합회는 평소 지역의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태며 재난 현장에서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무주외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와 통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남원 의용소방연합회, 거제 수해 피해복구 구슬땀

남원소방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거제시 일원에서 지난 22일 전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차원의 대규모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는 남원소방서 남원의용소방연합회 소속 대원 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앞장섰다.

활동 현장인 학동 몽돌해수욕장은 집중호우 당시 밀려든 폭우와 토사로 인해 해변 전체가 각종 쓰레기와 폐목, 스티로폼 등 부유물로 뒤덮여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었다.

남원 대원들을 비롯한 전북 의용소방대원들은 활동복과 장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를 마대에 담고 치워내며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남원소방서(예방안전팀)는 화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초기 대응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향교아파트와 시영2차아파트 총 232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감지기 전달식 후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